

쿠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의 반전시 속의 한국 묘사 및 친황비판*

李 英 姬**

本稿では、栗原貞子の反核・反戦詩の中で、韓国に関する詩を通し、作品ごとに特徴を糾明し、作家の韓国に対する認識形成の根拠を戦前から分析し、彼女の思想の一貫性を考察してみることにした。詩人の戦前より日本帝国主義のアジア支配の責任追及や朝鮮人被爆者の持つ本質的意味を早くから指摘したことを論じながら、詩の中で現れている過去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怒りとともに天皇の戦争責任論、原爆被爆に関する被害と加害の言説についても調べてみた。また、被爆者＝被害者といった意識を基軸とする傲慢な被爆ナショナルリズムを批判の対象にしている点を分析し、それらの解体の談論、これらの認識や思想などの反核・反戦詩との繋がりについても把握しながら、ちなみに栗原貞子の描写の特徴についても論じてみた。

キーワード：栗原貞子、反戦詩、被爆ナショナルリズム、朝鮮
(쿠리하라 사다코, 반전시, 피폭내셔널리즘, 조선)

1. 들어가며

쿠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¹⁾는 히로시마 출신으로 원폭투하일에 피폭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 남편과 함께 「주요문화연맹(中国文化聯盟)」을 결성하고, 46년 기관지 「주요문화」를 창간해 원폭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원수폭금지운동과 평화·호헌운동에도 매진하게 되는데, 원폭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던 미점령하에서는 이름을 감추고 원폭을 고발하는 작품을 차례차례 발표, 집필활동을 하면서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2A01018084)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 쿠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 くりはら さだこ, 1913년 3월 4일 - 2005년 3월 6일)

평화운동에 참가하여 반전(反戰), 반핵(反核), 반차별(反差別), 반천황제(反天皇制)를 주장했다. 특히 쇼와천황의 전쟁책임을 언급하며 「전전(戰前)·전중파(戰中派)에게 있어서 천황절대주의의 공포는 점이나 주근깨처럼 깊이 스며들어 있다. 천황제는 일본인에게 있어서의 원죄(原罪)이다」라며 신랄한 비난을 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및 아시아에 이어 전 세계로까지 응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녀가 타계할 때까지 70년 이상 창작활동으로 엮은 작품 등을 파악하면서 반전시 중, 한국에 관한 시 및 에세이, 논문 및 기사를 수집하여 작품별 특징을 규명하고 작가의 한국인식형성의 근거를 전전에서부터 분석하여, 그녀의 사상의 일관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녀의 시 속에 나타난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천황책임론, 피해와 가해의 언설, 피폭내셔널리즘의 해체에 관한 담론 등의 반핵·반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 쿠리하라 사다코의 묘사의 특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반전시(反戰詩) 속의 한국묘사

원폭문학에 있어서는, 직접 피폭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으로 묘사하는데 있어서, 히로시마의 로컬리즘 즉 원폭피폭의 체험에 고집한 나머지 그것을 보편적인 표현으로 승화시키거나, 전달 가능한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그 중간과정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원폭투하에 의한 압도적인 피해 때문에 피폭자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벗어나올 수 없으므로 문화면에서도 원폭자폐증이나 원폭 로컬리즘, 피폭내셔널리즘이 끈질기게 따라다녀, 이것 때문에 조선인피폭자와 외국인 피폭자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원폭을 주제로 한 시집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도게 산키치(峠三吉)의 「원폭시집(原爆詩集)」과 하라 타미키(原民喜)의 「원폭소경(原爆小景)」인데, 거기에서도 조선인 희생자는 언

급하고 있지 않다.²⁾ 그러나 쿠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는 원폭의 비참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같이 원폭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조선인에 대해 「돌 속에서(石のなかから)-한국인원폭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라는 시를 통해 과거의 군국주의일본 및 현재의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드물게도 조선인 피폭자의 차별과 참담한 죽음에 대해 다룬 시를 남겼다는 사실은 원폭문학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돌 속에서 들려 온다 / 불에 탄 수만 명의 사자(死者)의 소리
 / 물 물 달라(ムル ムルダラ) /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
 천년의 원한을 담아 / 밤의 공기를 떨게 한다 // 공원 안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 강변의 비석 속에서 / 밤새 들려오는 수만 명의
 사자(死者)의 소리/물 물 달라 물 달라 (ムル ムルダラ ムルダ
 ラ) // 고향의 논밭을 일구고 있다가 / 강제로 연행되고 / 고향
 의 마을과 거리를 걷고 있다가 / 강제로 연행되고 / 아내와 자식,
 부모형제에게도 / 이별의 말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 우마(牛馬)처
 럼 연락선에 실려 / 해협을 건너 연행되었다 // 타국의 신(神)을
 예배 당하고 / 타국의 국왕에게 충의를 맹세 당하고 /마지막에는
 / 섬광에 불탄 검은 해골이 되어 / 무리진 까마귀들에게 쪼아 먹
 혔다. // 아이고 물 물을 달라 / 고향은 둘로 찢어져 / 찢어진 반
 신(半身)에 / 천개의 핵무기를 실었다 / 나와 나의 반신에 왜 핵
 을 집어넣으려는 것인가 // 타국의 병사는 가라 / 핵무기를 들고
 가라 / 고향은 하나 / 바람이여 전해다오 저 멀리 / 찢어진 반신
 이 / 돌 속에서 부르고 있다고³⁾

미점령군은 히로시마의 비참함을 은폐하기 위해 원폭에 관한 표
 현을 탄압하고 원폭은 전쟁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해 평화를 가
 져왔다는 인식을 넓히고자 했다.

2) 卞宰洙(2007) 「朝鮮と日本の詩人-栗原貞子-」『朝鮮新報』2007.11.12, 인터넷
 주소창: <http://www1.korea-np.co.jp/sinboj/j-2007/06/0706j1112-00002.htm>. 2012년 11월 11일 검색

3) 栗原貞子(1997) 『栗原貞子詩集 忘れじのヒロシマわが悼みうた』詩集刊行の会,
 pp.49-50. 초출毎日新聞1995년 7월 5일. 본고에서 인용한 시의 번역은 모두
 필자의 역에 의함.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당시에는, 「공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 강변의 비석 속에서 / 하룻밤 내내 들려오는 수 만명의 사자(死者)의 소리」에서 차별받는 조선인을 묘사하고, 「물 물 달라(ムル ムルダラ) /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의 반복된 표현은, 원한에 쌓인 수만 명의 사자가 저주하는 말처럼, 혹은 일본의 군부정부가 저지른 죄를 되풀이해서 질책하는 것처럼, 중독성 있게 메아리치는 듯한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

또 「우마(牛馬)처럼 연락선에 실려」 강제 연행되어, 「타국의 국왕」 즉 일본천황에게 「충의를 맹세 당하고», 마침내 원폭피해로 「섬광에 불탄 검은 해골이 되어」 까마귀들에게 쪼아 먹히는 조선인의 기구한 일생을 리얼하게 표현해,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연관되는 시로서 「우중교령(雨中交霊)」이 있다.

(전략) 그날부터 우리들도 불에 굽혀지며 / 살아왔다. / 겐치레의 평화 속에서 / 지금도 몸 안에서 / 잔존방사능이 불타고 있다. / 토목공사와 군수공장에 / 강제당한 조선의 사람들도 / 그날부터 계속 불에 굽혀지고 있는 것이다. / 그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 아이들조차 / 부모의 몸을 꿰뚫고/삼대(三代)까지 불에 굽혀지고 있을 때(후략)⁴⁾

원폭의 불에 굽혀져서 죽은 자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은 「잔존방사능」이라는 촉매에 의한 것으로, 잔존방사능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동시에 피폭 체험의 비유이기도 하다. 「불에 굽혀」진다는 공통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죽은 자들의 분노와 살아있는 자들의 분노를 겹쳐 산자와 죽은 자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과거에 강제연행 당해서 일본에 오게 된 조선인을 언급하며 원통함과 억울함을 대신 토로하고 있다.

또 한국의 6.25전쟁 당시에 쓴 작품, 「나는 히로시마를 증언한다(私は広島を証言する)」가 있다. 미국점령군은 일본을 점령함과

4) 川口隆行(2007) 「“あやまちを繰り返しません”と誓ったわたしたち」『日本文学』56-11、日本文学協会、p.71. 1973년 7월 작.

동시에 프레스 코드⁵⁾를 만들어 원폭에 관한 일체의 표현을 금지했는데, 6.25전쟁이 시작되자 검열은 더한층 엄중해 저 본명으로 발표할 수 없어서 야지마 후지코(八島藤子)라는 펜네임으로 『원자구름 아래에서(原子雲の下より)』(青木書房・1952년)의 선집(選集)에 최초로 발표했다. 쿠리하라는 그러한 엄중한 탄압 속에서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살아남은 나는 / 무엇보다도 인간이길 원하여 / 특히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 불이 붙은 아기와/수많은 미래 위에 걸린 푸른 하늘이 / 어느 날 갑자기 찢어지고 / 수많은 미래가 화형에 처해 지려고 할 / 때 / 그 시체들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 살아있는 자들 위에 흘리며 / 무엇보다도 전쟁에 반대합니다. / 어머니가 내 아이의 죽음을 거부하는 그 일이 / 무언가의 이름으로 벌 받으려고 / 나의 망막에는 그 날의 / 지옥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습니다. // 1945년 8월 6일 /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고 잠시 후 /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 갑자기 / 거리가 텅겨 날아가고 / 사람들은 불에 데어 부풀어 오르고 / 7개의 강은 시체로 메워졌다. // 지옥을 훑쳐본 자가 지옥에 대해 말할 / 때 / 지옥의 마왕이 소환한다고 말하는 /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도 / 나는 살아남은 히로시마의 증인으로서 / 어디에 가더라도 증언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전쟁은 그만하자”라고 / 생명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⁶⁾

위 시는 솔직하고 평이한 말속에 분노를 머금은 표현을 담아 상냥하게 호소하고 있는 느낌이다.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은 증인으로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가 이와 같은 작품을 쓰게 했을 것이다. 전쟁은 그만하자

5) 프레스 코드(Press Code) 1945년 9월, GHQ가 신문·출판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발표한 규칙. 연합국과 점령군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제한했다. 1953년 강화조약의 발효에 의해 실효된다.

6) 栗原貞子(1991) 『日本の原爆記録 19 原爆詩集広島編』 日本図書センター、pp.331-332.

쿠리하라가 호소하는 그 열정적인 소리와 행동은 인간의 불퇴전의 말이 되어 독자로 하여금 함께 전쟁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게 한다. 한국의 6.25전쟁과 관련된 시 중에 또 한편의 애도시 「역사의 입회인이었기 때문에 - 고(故) 나가세 기요코(永瀬清子)님에게-」라는 시 속에서도 잠깐 언급된다.

(전략) 나도 점령 하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 노래했다. / “지옥을 훑쳐 본 사람이 / 지옥에 대해 말했을 때 / 지옥의 마왕이 데려간다고 하는 /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도 /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증언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는 전쟁은 그만두 라고/목숨을 걸고 노래하겠습니다” / 조선전쟁 때였습니다. // (후략)⁷⁾

계속해서 시인은 6.25전쟁과 분단된 한민족의 아픔을 「하나의 조선을(一つの朝鮮を)」이라는 시 속에서 묘사하고 있다.

〈전략〉 이웃에 사는 조선인 노파는 / 어린 손자를 업고 / 언제나 먼 곳을 / 슬픈 눈으로 보고 있다. / 북에 있는 아들과 / 남에 있는 딸과 / 소식불명의 아이들의 / 나이를 세고 있는 늙은 어머니. // 생각이라도 해 본적이 있는가 / 민족의 분단된 동체로부터 / 뿔어나오는 피를 / 부모자식 형제가 적과 아군이 되어 / 대립해야하는 슬픔을 / 서로에게 부르는 피와 피의 외침을 / 뜨거운 피의 심정이 / 얼어붙은 두터운 얼음벽을 녹이고 /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다 / 1972년 7월 4일 / 북과 남의 형제들은 / 굳게 악수했다. / 한일합방 이래 토지를 뺏고 / 인간을 뺏고 / 말을 뺏어온 우리나라 / 대동아 전쟁에서는 백만 명을 징병하고 /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시켰다. / 6.25전쟁에서는 일본전토가 미군의 / 군수기지가 되어 / 피를 묻혀 살을 찢은 것이다 / 미츠야작전(三矢作戦)⁸⁾

7) 栗原貞子(1997) 『栗原貞子詩集 忘れじのヒロシマわが悼みうた』 詩集刊行の会、p.48.

8)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제2차 조선전쟁)이 발생하여, 이것이 일본에 파급될 경우를 상정한다. 이것을 예제(例題)로서, 비상사태에 대해 일본방위를 위한 자위대의 운용 및 여기에 관련되는 제반 조치 및 수속을 통합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

이 조선을 표적으로 했듯이 / 4차방위⁹⁾는 조선을 향해 포구를 향하고 있다. / 분단된 두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 / 장식고분(裝飾古墳)¹⁰⁾의 벽화처럼 아름답게 채색된 아시아의 꿈을 / 키울 날은 언제일까. / 그 날을 위해 우리들은 / 침략의 어금니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

(「七・四通일지원집회」에서 낭독 1972.10)¹¹⁾

위 시에서는 분단된 이유를 한일합방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대동아전쟁 때, 100만 명을 징병해 피폭 당하게 한 일,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6.25전쟁 때는 군수기지가 되어 부유하게 된 사실을 「피를 문혀 살을 찢은 것이다」는 신랄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현재까지도 민족분단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또 「무너지지 않는 평화 도시를-다시 일어서는 한신대지진 피해자들에게-」라는 시에서도 「전쟁포기를 선언했지만 /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는 / 병참기지가 되어 / 타국인이 흘린 피를 빨아먹고 / 비옥해졌다」라고 재차 언급하며 일본의 죄를 날카롭게 추궁하고 있다. 그 시를 인용해 보자.

도시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 / 전쟁포기를 선언했지만 /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는 / 병참기지가 되어 / 타국인이 흘린 피를 빨아먹고 / 비옥해졌다 /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 인공섬을 만들어 오로지 / 욕망의 도시를 만들었다 // 어느 날 아침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의 도시가 / 땅 속에서부터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 콘크리트거리가 파괴되었다 / 바다를 메운 토지와 산을 깎은 단지가 / 맨 먼저 함몰하더니 무너져 내렸다 // (중략) 모든 것이 허무하게 방향성을 잃었다 / 그때

을 목적으로 했다.

9) 한국국내의 정세악화에 따라 일본 국외로부터의 무력위협이 증대하면, 자위대는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개시.

10) 횡혈식 석실(橫穴式石室)의 벽면과 석관에 채색이나 선각(線刻)등이 새겨져 있는 고분. 기타큐슈(北九州)에 많고 한반도에도 볼 수 있는 벽화고분(壁面古墳).

11) 栗原貞子編(1991) 前掲書、pp.392-393.

문득 생각난 것은 / 히로시마시인의 시였다 / 「아버지를 돌려
다오 어머니를 돌려다오 / ... 인간이 인간이 / 이 세상이 존재
하는 한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평화를 돌려다오」¹²⁾ // 폐허
속에서부터 히로시마가 / 다시 일어섰듯이 / 지진피해자들도
다시 일어서 /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것
이다.¹³⁾

이처럼 쿠리하라 사다코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부터 타국
을 침략해 이권을 빼앗아 온 악행을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저
지르고 있으며, 한신대지진 역시 자연재해가 아니가 일본 국가가
저지른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
지 한국은 물론 자국민에게까지 그 고통을 강제하고 있음을 토로한
다.

그녀의 시선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도 전
개되는데, 관련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쟁 중 군국주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노마루(日の丸),
기미가요(君が代)」의 교육이었다. 1943년 10월, 일본문학보국회가
편집한 「네거리시집(辻詩集)」 안에는 일장기를 찬미하며 전의를 앙
양한 작품이 다수 있다. 그 중에 서정시인으로 알려진 가와지 류코
(川路柳虹)의 「미국말살(アメリカ抹殺)」이라는 시의 후반부를 인용
해 보면,

결벽은 우리들의 윤리 / 철저는 우리들의 액막이 의식이다
/ 뉴욕은 불탄 들판이 되고 / 워싱턴에 일장기 펄럭이는 / 북
미전토 새로운 〈야마토〉가 되는 날까지 / 전쟁은 나아가리라 /
성전(聖戰)은 계속되리라.¹⁴⁾

12) 「아버지를 돌려다오 어머니를 돌려다오 / ... 인간이 인간이 / 이 세상이 존재
하는 한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평화를 돌려다오」의 부분은 도게 산기치(峠三
吉)의 원폭시집서시에 수록되어 있음을 쿠리하라 사다코는 시의 원문에서 명기
하고 있다..

13) 栗原貞子(1997) 前掲書、p.19.

14) 日本文学報国会編(2005) 『辻詩集』 ゆまに書房、p.120.

미국전토를 점령하고 워싱턴에 일장기를 펴릴 때까지 전쟁은 그만두지 않는다고 국민을 선동한 시이다. 쿠리하라는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의 심불을 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¹⁵⁾고 호소하며 일장기에 관한 3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의 두 편을 인용하여 가와지 류코의 일장기 관련시와 비교해 보자.

깃발(1)

(전략) 저 깃발아래에서 / 우리들은 매일 아침 / 영양실조의 현기증을 느끼면서 / 노예의 맹세를 하고 / 저 깃발을 흔들며 붉은 어깨띠를 맨 / 아버지와 형을 배웅했다. / 저 깃발이 대륙의 성벽에 펴린 이래 / 깃발은 제국의 꿈을 광신했다. / 과타카날의 끝에서부터 / 코레히돌의 바위산. / 유황사이판의 동굴 속에서 까지도 / 우리들의 아버지와 남편을 달리게 해서 / 짐승처럼 굶주리게 한 나머지 / 하얀 뼈로 되어 흩어지게 했다. // 아아 흰 바탕에 붉은 일본의 깃발이여. / 그 아래에서 행해진 흉포한 악몽의 이모저모. 마닐라와 남경에서는 살아있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 가솔린을 뿌리고 / 불을 붙여 태운 20세기의 대흉악범. // 오늘도 깃발은 뻘뻘스럽게 나부끼며 / 피로 물들인 온갖 기억을 / 상실한 채 / 펄럭 펄럭 펄럭이면서 / 또다시 새로운 지도를 꿈꾸고 있다.

(1952.6)¹⁶⁾

깃발(2)

히노마루의 빨강은 인민의 피 / 흰 바탕의 흰색은 인민의 뼈 / 전쟁할 때마다 / 뼈와 피의 깃발을 앞세우고 / 타국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 피를 흘리게 하고 뼈가 되게 했다. // 전쟁이 끝나자 / 평화의 깃발이 되어 / 올림픽에도 / 아시아 대회에도 / 높이 게양되어 / 경기에 우승할 때마다 / 기미가 요가 연주된다 / 천만 명의 피를 빨고 / 천만 명의 뼈를 드러내게 한 / 범죄의 깃발이 / 뻘뻘스럽게 나부끼고 있다 / 「우리 임금님의 치세는 천대(千代)로, 팔천대(八千代)로 이끼가

15) 栗原貞子(1982) 『反核詩集 核時代の童話』 詩集刊行の会、p.58.

16) 栗原貞子編(1991) 前掲書、pp.395-396.

낄 때까지』라고 / 그것을 위해 인민은 피를 흘리고 / 뼈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뼈들이 아시아의 들과 산에 방치되어 있다 / 하지만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 만 것일까 / 중국의 만인갱(万人坑)¹⁷⁾의 뼈들도 / 남쪽 섬에 방치되어 있는 / 뼈들도 / 콩깍묵과 메뚜기를 먹고 / 감자 잎을 먹으며 굶주렸던 일 /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단소개(疏開)로 / 이를 생기게 한 일 / 공습경보의 어두운 밤 / 방공호에서 가족들과 숨을 / 죽이며 있었던 일 / 30만명의 사람들이 / 섬광에 불타 죽었던 일도 / 벌써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 매일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난 후 / 기미가요의 반주에 /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 나부끼는 피와 뼈의 깃발 / 인민의 하루는 히노마루로 마감하는 것이다 / 시청의 옥상과 / 학교운동장에도 나부끼고 / 평화공원의 위령비의 하늘에도 /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부끼고 있다 // 히노마루의 빨강은 인민의 피 / 흰 바탕의 흰색은 인민의 뼈 / 일본인은 잊어도/아시아의 사람들은 잊을 수 없으리.

(『YWCAニュース』、1975.9)¹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고발을 「마닐라와 남경에서는 살아있는 여자와 아이들에게/가솔린을 뿌리고/불을 붙여 태운 20세기의 대흉악범」으로 표현하고, 이어서 자국민과 타국인들을 원폭의 섬광에 불타죽게 한 일장기의 피투성이의 역사를 담담하게 묘사한다. 깃발2에 계속해서 「천만명의 피를 빨고/천만명의 뼈를 드러내게 한/범죄」 사실을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뻔뻔스럽게 깃발을 나부끼게 하고 있는 일본의 전후국가의 모습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다. 이것은 운동을 포함해 전후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며, 일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문제를 시로 읊었다고 보여진다.

17) 수많은 시체로 메워진 구덩이라는 뜻으로, 중일전쟁 후기, 중국 동북지방(東北地方)에서 일본의 탄광 등에 징용된 중국인이 혹사당한 결과 시체가 속출하여 그 시체를 묻은 구덩이 터를 말한다.

18) 栗原貞子編(1991) 前掲書、pp.396-398.

3. 천황의 전쟁책임론

원폭투하를 유발시켜, 수백만의 일본인을 천황을 위해 죽게 하고, 아시아 수천만을 죽인 전쟁의 최고책임자는 면죄를 받았다. 쿠리하라는 일반 시민이 원폭의 비참함의 구렁텅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처참한 꼴을 당하게 한 장본인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를 통해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날카로운 의식의 시를 수편 남겼다. 먼저 「상냥한 인간 천황님(やさしい人間天皇さま)」이라는 시에서는,

강아지에게도 빙긋 / 양로원의 노인들에게도 /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게도 / 상냥하게 미소지으며 「몸을 소중히 하세요」 롯포학원(六方学園)의 지적 장애아동이 / 「아씨씨」라고 부르는 약간 고양이 등을 한 / 상냥한 인간 천황님 // 그런데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가는데 / 자주색의 궁정자동차 몇 대를 / 특별 수송시키고 전시(全市)의 도로라는 도로는 / 일용노동자와 근로봉사로 꽉 채워 / 청소작업을 시키고 / 히로시마현에서는 피스틀과 곤봉을 든 경관의 / 경비비용은 몇 백만 엔을 계상하고 / 3일간 체재에 소 4마리를 죽여 / 잡수실 부분만 / 오동나무상자에 채워/냉장고에 넣어 두고 도착을 기다렸다//가 두에는 흔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 더러워진 백의의 용사들 / 미국병사와 손을 잡고 가는 / 패배한 나라의 딸들. / 뜨거운 함석 판잣집에 살며 /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어두운 무리들을 / 강제집행으로 내쫓고 / 철근콘크리트 빌딩이 / 준비하게 세워진 히로시마의 거리 / 몰라볼 정도로 부흥했다며 / 칭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 부흥한 것은 피를 빨아먹은 악독한 상인들 뿐 / 바람에 불려 모여온 나뭇잎처럼 / 강변 독에 밀집된 / 판잣집에 살며 / 텅 빈 찰قه에 한숨을 쉬며 /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 붉은 피의 히로시마족 // 카키색의 대군이 조선해협을 / 건너간다는 소문은 이어지고 / 결국 우리들의 남편과 아이가 / 다시 육탄이 되려 한다는 사실도 / 알고 계시는 걸까 / 모르고 계시는 걸까 / 강아지에게도 빙긋 / 약간 고양이 등을 한 / 상냥한 인간 천황님 (『平民新聞』 1952.1.15)¹⁹⁾

19) 栗原貞子編(1991) 前掲書、pp.399-401.

동물인 강아지에게도, 노인과 고아들, 장애아동에게도 빙긋하며 미소를 보내는 「약간 고양이 등을 한 / 상냥한 인간 천황님」이 진정으로 상냥한 것일까.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다정하게 감싸 주며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천황님의 히로시마 순행에 수반되는 「궁정자동차의 특별수송」 「모든 도로의 청소」 「수백만엔의 경비비용」 「3일간 체제에 소 4마리를 죽여」 등의 화려한 준비의 콘트라스트로 나열한다. 「흔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 더러워진 백의의 용사들 / 미국병사와 손을 잡고 가는 / 패배한 나라의 딸들」 「텅 빈 쌀궐에 한숨을 쉬며 /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하루살이 히로시마인들을 대비시키는 묘사를 통해 상냥한 인간천황님을 즉좌에서 부정한다. 쿠리하라 스스로 『핵·천황·피폭자(核・天皇・被爆者)』라는 책을 간행했듯이, 그녀의 원폭문학의 모티브에 있어서, 천황과 피폭자와는 뭇 레야 뭇 수 없는 연속적인 테마이기도 했다. 그녀는 천황제에 대한 거부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王さまの耳はろばの耳)」라는 시를 읊어 천황의 어리석음을 풍유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되풀이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노래하는 느낌이 연상되는 리듬감 있는 묘사를 도입했다.

누구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 말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 순진한 중학생과 / 임금님께 조국을 빼앗긴 조선의 / 젊은이까지 지원하게 해서 / 용감한 하늘의 독수리 용감한 바다의 독수리라고 추켜세워 / 바다 남쪽 끝과 정글 속에/대륙의 들판에 시체를 드러내게 했다. // 누구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임금님을 신(神)이라고 생각해 / 신국(神国)에 등 돌리는 나라들을 귀축(鬼畜)이라 비난하고 / 전부 불태우고 / 전부 빼앗고 / 전부 죽이고 / 금치훈장(金鷄勲章)²⁰⁾을 받았다. //

20) 제2차 세계대전까지 운용되고 있었던 일본훈장의 하나로, 무공발군의 군인·군속에게 수여했다. 1890년 2월 11일 건국기념일에 황기(皇紀) 2550년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군대가 대외적 군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었기에, 군인·군속의 지위를 높이고 사시를 양양할 의도가 있었다. 금치(金鷄)의 이름은 신무천황이 동정(東征)할 때, 금색의 술개가 천황의 활에 머물러, 적인 나가스네히코의 군세가 눈이 어두워져 항복했다는 고

누구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은 / 왕제(王制)를 지키기 위해 항복하지 않아 / 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 / 폭탄이 투하되어 / 30만 시민을 태워 죽였
 다. // 전쟁에 져서 / 드디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임금님도 「내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
 선언했다 /(후략)1980.2.1.²¹⁾

여기에서도 쿠리하라는 조선에 대해 재차 언급, 「임금님께 조국
 을 빼앗긴 조선의 / 젊음이까지 지원하게 해서 / 용감한 하늘의 독
 수리 용감한 바다의 독수리라고 추켜세워 / 바다 남쪽 끝과 정글
 속에 / 대륙의 들판에 시체를 드러내게 했다」며 반복해서 천황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여기서 동화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와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때 당시까지 존재하는 쇼와천
 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비아냥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게
 다가 극도의 혐오의 감정을 담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거
 듭 5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비난하고 있는 시이다.

위 시는 천황의 전쟁책임 회피에 대한 규탄의 시로, 배경이 된
 것은 쇼와천황이 1975년 10월 31일, 첫 방미(訪米)를 하고 귀국
 직후,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행했을 때, RCC(주교쿠방송)
 기자 아키노부 도시히코(秋信利彦)의 질문에 대해 이런 대답을 했
 다고 한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쟁 중에 생긴 일이므로 히로시마시민에 대해서는 딱하지만 부득
 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한 말의 수사(修
 辭)에 대해서는, 나는 그러한 문학방면은 그다지 연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천황은 전쟁책임의 문제를 문학론으로 운운한 적이 있다.

「원수폭금지 국민회의」라는 단체에서는 천황의 이 말에 충격을

사에서 유래한다. 청일전쟁 중에 수장자에게는 종신연금이 주어지게 되어 명예
 와 함께 경제적 은전도 수반하게 되었다. 패전 후 GHQ의 지시로 폐지, 연금
 도 무효가 되었다. 수장자는 약 94만 명이나 되었다.

21) 栗原貞子(1982) 前掲書, pp.16-17.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사회를 열어 11월 12일, 천황의 발언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11월 17일, 항의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대해 40일이 경과한 12월 23일, 우사미(宇佐美) 국내청장관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했다.

「(전략) 이와 같은 형태의 기자회견은 첫 경험이므로 너무 간결한 대답을 하시어 진의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으로 배찰됩니다 (중략). 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도 원자폭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원자폭탄투하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히로시마시민에 대해서는 딱하지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원자폭탄 투하를 긍정하는 의미의 발언이 아니라, 전쟁 중 스스로 그것을 멈출 수도 어쩔 수도 없었다는 것을 “부득이했다”라는 말로 하셨다고 배찰됩니다(후략)」

쿠리하라는 이 회견에서 명백해진 것은 우선, 전쟁책임을 문학상의 표현의 문제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다음으로, 「일본의 국민성과 미국의 국민성은 다르다」라고 단정한 천황과 국민과의 민주적 접촉은 어렵다고 표명한 점, 셋째 「원폭투하는 부득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우사미 국내청장관의 보충설명처럼 「이러한 회견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의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회견 때,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이라고 묻자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가는 방송회사의 경쟁이 심해지므로 말할 수 없다”고 농담을 섞을 정도로 선명하게 자기규제를 한 천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진의를 전할 수 없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²²⁾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제왕학에 의한 언어조작의 명인이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전쟁책임의 문제를 문학상의 문제로 하고, 빵을 요구하는데 돌을 준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되는 바이다」²³⁾라는 발언을 했다.

계속해서 쿠리하라는 포츠담선언에 따른 무조건항복을 기한 내에 했더라면, 원폭투하는 피할 수 있었는데 천황제유지를 위해 마지막

22) 栗原貞子(1976) 「被爆三十年と戦争責任者の発言」『現代の眼』9、現代評論社、pp. 203-204.

23) 栗原貞子(1976) 上掲書、pp.203-204.

기회를 놓치고 원폭투하 후, 무조건 항복을 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30만 사자(死者)와 생존자 40만 명은 천황제 호지를 위해 희생된 것이다. 전쟁 중의 일이라 부득이했다가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기한 내 항복권고의 회답을 일본 측이 거절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즉좌에 철저한 파괴」를 받은 것이다. 천황의 원폭발언은 피폭자의 분한 마음 위에 원통함을 겹친 것이다²⁴⁾ 라고 비난했다.

또 쿠리하라는 그의 논문에서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2차 대전 중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진주만작전을 세운大本營의 작전참모 하라다 미노루(原田実)는 1962년 미국의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받게 된다. 이것은 미국민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국은 「하라다씨는 일본공군의 우수한 장교로 미국과의 관계도 협력적이어서 훈장수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또 미국해군의 초대로 전미(全美)를 강연하러 다니고 「만약 일본이 원폭을 갖고 있었다면 사용했겠지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을 때에는 어느 나라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연설도 했으며 록히드사건 때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마찬가지로 65년 12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작전지휘를 한 미국의 카치스.E. 루메대장에게 훈일등욱일수장이 자위대육성공로에 의해 수여되었다. 미일양정부는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맹군이라며 원폭투하와 진주만기습작전의 전쟁책임을 서로 상쇄하고 서로에게 훈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²⁵⁾을 밝히고 있다.

4. 가해와 피해의 언설-피폭내셔널리즘의 해체

원폭문학이라고 하면 주로 피폭자들의 입장에서 「피폭자」=「피해자」라는 도식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피폭내셔

24) 栗原貞子(1976) 上掲書、pp.205-206.

25) 栗原貞子(1976) 前掲書、pp.208-209.

널리즘에 집착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쿠리하라 사다코는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히로시마 노트(ヒロシマ・ノート)』(1965)에서 보여지듯이 「피폭자」=「피해자」라는 도식을 전복함으로써, 원폭(히로시마의 피해)를 말하는 장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아시아에 대한 가해(加害))의 표현을 창출하는 「가해와 피해의 복합적 자각」의 도정을 말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사상이 적절히 표현된 시가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ヒロシマというとき)」이다.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 〈아아 히로시마〉라고 / 다정하게
응답해 줄까 / 〈히로시마〉라고 말하면〈필 하버〉 / 〈히로시마〉
라고 말하면 〈남경학살〉 / 〈히로시마〉라고 말하면 여자와 아이
들을 /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 석유를 붓고 불태운 마닐라의
화형 / 〈히로시마〉라고 말하면 / 피와 불꽃의 메아리가 되돌아
오는 것이다 // 〈히로시마〉라고 말하면 〈아아 히로시마〉라고
부드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 아시아 각 나라의 사자(死者)
들과 무고한 백성들이 / 일제히 능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
분출하는 것이다 / 〈히로시마〉라고 말하면 / 〈아아 히로시마〉
라고 / 부드럽게 되돌아오게 하려면 / 버렸을 무기를 진정으로
/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 타국의 기지(基地)를 철거하지 않
으면 안된다. / 그 날까지 히로시마는 / 잔혹과 불신의 쓰디
쓴 도시다. / 우리들은 잠재된 방사능에 / 불타고 있는 장벽이
다. // 〈히로시마〉라고 말하면 / 〈아아 히로시마〉라고 / 다정
한 대답이 되돌아오게 하려면 / 우리들은 /우리들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⁶⁾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ヒロシマというとき)」의 가해와 피해, 규탄과 사죄의 교환이 보여지는 내용이다. 원폭문학을 말하는 장에서 피해/가해라는 기억이(혹은 피해/가해를 말하는 장에서 원폭문학이) 어떻게 소환되고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며 현재에 다시 생기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쿠리하라 사다코의 언설을 중심으로

26) 栗原貞子(1991) 前掲書、pp.374-375.

파악해 보고자 한다.

위 시는 일본병사가 중국 및 필리핀, 미국을 상대로 저지른 파렴치한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가해」를 말할 때의 정전(正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위 시이다. 쿠리하라 스스로가 「미국인들은 “히로시마”라는 말을 들으면 “진주만”이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많고, 아시아인들은 “1945년 8월 6일, 9일 이후 일본국은 피폭국의 피해자가 되었다. 아시아 침략의 가해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 시는 그러한 고발에 대해 피폭자라고 말하더라도 원폭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아시아침략의 가해자였다는 사실, 가해책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반성을 쓴 시이다」²⁷⁾라고 스스로 말한다.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아아 히로시마〉라고 /다정하게는 응대해 주지 않는 것은 왜일까를, 중국과 아시아에서 2천여만 명을 살육한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명백히 밝히며, 아직 보상하고 있지 않은 전쟁책임의 추궁이라는 과제를 강하게 호소한다.

다정한 응답을 기대하는 상대는 누구일까. 그것은 〈아시아 각 나라의 사자(死者)들과 무고한 백성들〉이다. 이 시의 발화(発話)주체는 「아시아」와의 응답, 교환이라는 수행적 작업에 의해 「우리들」= 「일본」 「일본인」이라는 주체를 재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화의 전제에 「〈아아 히로시마〉라고 /다정한 대답이 되돌아 오게 하려면」이라는 조건을 말하는 시의 표현구조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에는 가해와 피해, 규탄과 사죄의 교환의 논리가 강하게 관철되어 있다.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에게 있어서 싼 자원과 노동력의 공급지로서, 대규모의 상품시장으로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기에, 가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사죄, 사죄의 담보물로서의 경제진출이라는 순환되는 교환의 논리(자본의 논리)는 글로벌리제이션이

27) 栗原貞子(1982) 前掲書、p.54.

침투하는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계에서 빈번하게 주장된 과거 청산의 논리이기도 하다.

아울러 위 시는 핵폐절에 대해 일본인이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대의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히로시마의 피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응시하지 않으면 살육의 역사와 희생자의 기억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인식의 표현과 함께 문맥에 있어서도 지극히 선구적인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싶다.

쿠리하라는 평화교육 중에서도 일본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이중의 존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적절한 교재로 널리 쓰여 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어느 중학교 2학년생이 이 시를 읽고 「미국에 의해 20여만 명이 원폭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도 조선과 중국에서 나쁜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단은 달라도 죽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도 일본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일본이 저지른 일을 다시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폭에 대해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피폭 내셔널리즘의 해체를 엿볼 수 있는 시이다.

국가에게 전쟁책임을 요구하는 피폭자는 자신의 전쟁책임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을까? 피폭자 또한 군도(軍都)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시민으로서 직접, 간접 전쟁에 협력하여 원폭투하를 유발시킨 책임을 일단은 져야하는 것이며, 아시아의 민중 2천만 명을 살육한 황군, 천황군군대의 포학은 스스로에게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원자지옥을 빠져나와 살아남은 피폭자에게 전쟁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매정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민중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히로시마에서는 국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피폭자와의 교류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원수폭금지대회는 물론, 세계교직원조합의 군축평화교육 국제심포지움, 아시아청년연수회 등의 집회에서 피폭자의 체험에 대해 “우리들은 히로시마의 피폭자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들의 나라를 침략한 전범정치가 8/6평화식전에서 스피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

는 피폭자에게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느 동남아시아의 작가는 “히로시마는 전 세계 유일한 피폭국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침략의 가해자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반핵 부인집회의 게스트의 한 사람은 “피폭의 처참함은 잘 알지만, 그러나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전쟁의 무서움을 말한다 해도 원인을 모르고서는 전쟁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우리들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해 참혹한 꼴을 당했다”라고 예리하게 되돌아온다.²⁸⁾

아무리 히로시마의 비참함을 말하고 핵폐절을 호소해도 자국의 군사대국화를 허용해서는 「아아 히로시마」라고 공감할 수 없다. 오히려 가해책임을 되묻는 말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의 책략에 협력한 직간접의 전쟁책임을 자각할 때, 일본인들의 전쟁체험, 원폭체험도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는 인도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그 절대성은 그 유발을 허용한 국민의 책임과 아시아 국민에 대한 가해책임을 불문에 붙이거나 상쇄될 수는 없다. 피해와 가해의 복합적 자각에 섰을 때, 비로소 타국민간의 연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스스로가 국가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에 의해 가해(협력)를 강제한 국가의 전쟁책임을 명확히 포착해 추궁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전전, 전후를 이은 사상의 일관성

쿠리하라 사다코의 반전사상은 전후, 즉 피폭이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문학자들 중에서도 전전에는 전쟁찬미시를 쓰다가 전후에는 당시의 시류에 영합한 시인들도 다수 있지만, 쿠리하라는 전전에도 반전시를 쓴 기록이 있다. 발표되지 못한 채 노트에 쓰여져 전후가 되어 드디어 발표할 기회를 얻은 작품 「전쟁이란 무엇인가

28) 栗原貞子(1985) 「國家の戦争責任と被爆者」『月刊社会党』345、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局、pp.142-143.

(戦争とは何か)』는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전쟁의 잔학함을 용인하지 않는다 / 나는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된 전쟁으로부터도 / 추한 악귀의 의도를 발견한
다. / 그리고 자기들만큼은 전쟁권 밖에 있으면서 / 끊임없이
전쟁을 찬미하고 선동하는 속이 시커먼 / 사람들을 미워한다.
/ 성전(聖戰)이니까 정의의 싸움이니까 라고 하면서 /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살인. 방화. 강간. 강도. / 미쳐 도망가
지 못했던 여자들은 적병 앞에서 / 옷을 벗으며 벌고 있지 않
는가 / 가을바람에 와삭 와삭 소리를 내고 있는 수수밭에서는
/ 여자에 목마른 병사들이 여자들을 뒤쫓으며 / 온갖 잡귀가
떼지어 다니며 나쁜 짓을 하듯 범하고 있다. / 고국에 있었다
면 좋은 아버지, 좋은 형, 좋은 아들이/전장이라는 지옥세계에
서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맹수처럼 미쳐 날뛰는 것이다.

(1941년 작)²⁹⁾

위 시 「전쟁이란 무엇인가」가 쓰여진 1941년에는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전하는 연전연승의 뉴스가 국민들을 취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다코는 각성된 반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남편인 쿠리하라 다다이치(栗原唯一)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당장 상경하여 헤이민샤(平民社)³⁰⁾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의 정세로서 다다이치는 바로 특별고등경찰로부터 갑호특별요시찰인(甲号特別要視察

29) 井之川巨(2000)「女たちの反戦詩--与謝野晶子から栗原貞子へ」『新日本文学』55(6)、新日本文学会、p.11.

30) 러일전쟁이 개시될 즈음에, 비전론(非戰論)을 핵심으로 하여 결성된 사회주의 결사. 청일전쟁 후, 일본의 조선진출과 군사력강화 속에서 러일관계는 절박해지고 대러동지회(対露同志会)와 칠박사(七博士)의 대러강경의건서(七博士建白事件)가 도화선이 되어 각 신문의 논조도 거국일치·주전으로 기울어져 갔다. 1903년 10월,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고도쿠 슈스이(幸徳秋水)는 〈퇴사(退社)의 사(辭)〉를 게재하고 약 1개월 후 《헤이민(平民)신문》(주간)을 발행했다. 창간호에서 〈평민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의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선언하고, 세론을 향해 러일비전(非戰) 활동을 개시했다.

人)으로서 미행당하는 몸이었다. 또 아나키스트였던 남편은 군무원(軍務員)으로 중국 상해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군인의 잔학행위를 목격한 사실과, 그것을 지인에게 말하여 밀고를 당해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한 남편의 영향을 받아 전쟁의 허망함과 잔학함을 계속 응시하며 반전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전시 중에 썼던 반전시 「인간의 존엄(人間の尊嚴)」 「어긋난 계절(季節はずれ)」 「편지(手紙)」 「햇볕썰기틀 하면서(日向ぼっこをしながら)」 등의 시는 1946년에 간행된 『검은 계란(黒い卵)』에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미군점령군의 검열에 걸려 삭제되었다. 위 시들에 대해서 시인 스스로 「나의 반전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상적 입장을 의미하는 작품이 다」라고 썼듯이 이 시들을 읽어보면 희망을 지녔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 온 시인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삭제된 시들은 1981년 미국 맥켈든 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이후 『검은 계란(黒い卵)』 완전판이 발간된다.

일반적으로 피폭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의 창작, 활동의 출발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발표의 장을 전후에 얻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다코는 전쟁 중에 획득한 강렬한 반전사상을 단가, 시, 에세이로 표현해 노트에 기록해 두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그녀의 반전사상은 전전, 전후를 통해 일관성을 관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나오며

원폭을 쓴 작품은 세계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일본점령과 함께 점령군의 프레스 코드에 의해 검열당해 미일강화조약으로 일본이 독립할 때까지 7년간, 거의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미점령군의 압력에 의해 원폭문학은 빛을 볼 수 없었고, 독립 후에도 터부시하여, 대표적인 원폭문학자 하라 다미키(原民喜), 오다 요코(太田洋子), 도게 산키치(峠三吉), 쇼다 시노에(正田篠枝) 등은 피폭의 후유증과 함께 부당한 문학상황 속

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쿠리하라 사다코는 원폭피폭자에게 있어서 먼저, 천황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점에 서서 원폭문제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쿠리하라의 기본시점이다.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피폭당한 것이 아니라 「황국의 신민」 「폐하의 백성」으로서 피폭당한 것이다. 군인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생도 「성전(聖戰)」 수행의 매커니즘의 일원으로서 동원이었고 강제 연행된 조선인도 그 일원에 집어넣어진 것이다. 합리가 불합리로 되고 불합리와 비인간성이 천황의 이름에 의해 강제되었다. 전전의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지배의 책임 추궁을 하고 조선인피폭자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일찍부터 지적했던 사람도 그녀였다.

또한 피폭자=피해자라는 의식을 기축으로 하는 오만한 피폭내셔널리즘을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작(詩作)의 진정한 목적은 가해의 인식과 철저한 사죄를 통해 원폭관의 낙차를 메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폭체험의 특권화에 의한 「피폭내셔널리즘」의 해체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쟁책임, 가해의 문제를 포착한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ヒロシマというとき)」의 시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가해라는 카테고리의 편성, 재편성을 비판적으로 재포착하고 있다.

쿠리하라 사다코는 반핵·반전시라 하더라도 일상 생활자의 시점에서 시를 써 왔다. 그녀의 입장은 전전부터 반전·평화주의를 관철했으며 전후는 거기에 반핵·호헌(護憲)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기치선명하고 「사랑과 분노」에 가득 찬 것이었다. 그 시야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동향으로까지 미쳐, 언제나 구체적이고 동시대적이었다. 전후의 일본의 변영을 「허위의 변영」이라고 간주하고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일어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계속했다.

쿠리하라의 테마는 원폭만이 아니었다. 쿠리하라는 생애에 걸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말에 목숨을 건」 시인으로서 허위의 정치와 「허망한 말」과 계속 싸웠던 것이다. 1980년 남편이 타계했을 때 헌시에서 「전쟁이

없는 미래를 열겠습니다/우리들의 투쟁을/먼 곳에서 지켜봐 주십시오.³¹⁾라고 맹세한 적이 있다. 쓰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쓰는 것이 쿠리하라의 일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일본의 한 여성이 시대에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그녀의 작품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쿠리하라 사다코의 정신 속에서 풍화해 가고 있는 전쟁체험,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아래에 일순간에 수만 명을 소사시키는 속에서 자신의 생을 묻는 싸움은 그 히로시마의 이름과 함께 더욱 더 강렬하게 반전에의 강고함을 더해갈 것이다.

참고문헌

- 井之川巨(2000) 「女たちの反戦詩—与謝野晶子から栗原貞子へ」『新日本文学』55(6)、新日本文学会、p.11.
- 川口隆行(2007) 「“あやまちは繰り返しません”と誓ったわたしたち」『日本文学』56-11、日本文学協会、p.71.
- 栗原貞子(1976) 「被爆三十年と戦争責任者の発言」『現代の眼』9、現代評論社、pp.203-206、pp.208-209.
- (1982) 『反核詩集 核時代の童話』詩集刊行の会、pp.16-17、p.54、p.58.
- (1985) 「国家の戦争責任と被爆者」『月刊社会党』345、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局、pp.142-143.
- (1991) 『日本の原爆記録19原爆詩集広島編』日本図書センター、pp.331-332、pp.374-375、pp.392-393、pp.395-401.
- (1997) 『栗原貞子詩集 忘れじのヒロシマわが悼みうた』詩集刊行の会、p.19、pp.48-50、p.68.
- 日本文学報国会編(2005) 『辻詩集』ゆまに書房、p.120.
- 卡宰洙(2007) 「朝鮮と日本の詩人-栗原貞子-」『朝鮮新報』2007.11.12. 인터넷주소: <http://www1.korea-np.co.jp/sinboj/j-2007/06/0706j1112-00002.htm>. 2012년 11월 11일 검색.

31) 栗原貞子(1997) 前掲書、p.68.

338 日本語文學 第 64 輯

성 명(한 글) : 이 영 희

(한 자) : 李 英 姬

(영 문) : Lee, Young-Hee

논문영문제목 : A Study of Japanese Emperor-criticism and
Depicted Korea in Kurihara Sadako's an Antiwar
Poetry

소 속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E-mail : gomgoda21@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